

미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 속속 집결

전쟁 위기 속 외교전도 긴박
러, 접경 3곳에 병력 증파 포착
미 공수사단, 폴란드서 집결중
우크라이나 외교적 해결 모색



미국 육군 제82공수사단 소속 부대원들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 남동부 제슈프-아시온카 공항에 착륙한 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미 국방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에서 수일간 총 1700명가량의 미군 병력을 폴란드에 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군대가 속속 집결하면서 전쟁 발발 위기가 점증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CNN방송·로이터통신은 지난 4일 상업위성 업체 맥사(Maxar)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서 50km 이내 세 곳에 무장과 병력을 추가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은 10일부터 진행될 러시아-벨라루스 간 연합훈련이 명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CNN은 전했다. CNN 등은 훈련 장소인 벨라루스 남부 루니네츠 내 비행장에는 대공 방어시스템인 S-400과 전투기 Su-25 10여대 등이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러시아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루니네츠에 이런 무장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루니네츠에서 수백km 떨어진 두 곳에서도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하고 군사 기지를 설치 중인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27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남동부 레치차 지역에는 탱크, 곡사포를 포함해 기동 전투 차량이 배치돼 있으며, 막사 등 야전 숙영 시설도 설치되고 있다. 레치차 남동쪽으로 우크라이나 국경과 25km 떨어진 옐스크 인근에도 단

거리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러시아 병력이 새로 배치됐다. 영국 군사정보업체 IHS제인스는 옐스크에 3개 이상의 최첨단 포병부대인 대대전술단(BTG) 소속 부대들이 주둔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드리 파루비 전 국방장관은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고 하며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어떤 도시든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의 20만 병력이 나라 전체를 침공할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수도 키예프나 일부 도시 정도를 점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에 약속했던 동유럽으로 추가 파견 병력을 현지로 속속 보내고 있다. 6일 AP통신은 이날 수십명의 미군 병력과 무기가 C-17 수송기에 실려 폴란드 남동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제슈프-아시온카 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 육군 최정예 부대인 82공수사단 여단전투단의 일부 인원이 도착한 데 이어 두 번째 미 병력이 합류한 것이다. 앞으로 며칠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의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에서 총 1700명가량의 미군 병력이 폴란드에 배치된다. 이번엔 폴란드 파견되는 병력은 지난 2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에 대비해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추가 배치하기로 한 병력 3000명의 일부다. 동유럽에 추가 배치된 미군 병력은 일단 미군의 지휘를 받을 예정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신속대응군을 가동할 때 지원에 나서게 된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는 현재 각각 4000명과 900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다. 이들 병력은 지난달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유럽 파병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8500명과는 별개다. 마리우시 브와슈치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제국을 재건하려는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와 정책에 대한 최고의 대응책은 이같이 연대해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미군의 도착을 반겼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외교전도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터키 정상과 잇따라 대화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전쟁 위기의 당사국으로 외교적 해결이 간절한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노르망디 형식'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노르망디 형식 회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4개국이 참여한 회담을 일컫는다. 노르망디 형식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들 4개국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한 후 전 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휴전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또 4개국이 2주 안에 독일 베를린에서 다시 만 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IAEA 조사단 내주 방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을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오는 14일 방일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IAEA는 애초 IAEA 조사단의 현지 방문 조사를 작년 12월 중순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방일 일정이 연기됐다. IAEA와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오는 18일까지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등을 시찰하고 방류할 물의 상태, 처분 절차의 안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IAEA 안전 기준에 근거해 조사할 예정이다. 평가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는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 당시 노심용량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배출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작년 4월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이 해양 오염을 이유로 반발하자 일본 정부는 IAEA를 앞세워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처리하고 그레도 남는 삼중수소(트리튬)의 오염 농도를 바닷물로 희석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방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8년 '400명 참사' 부른 인도네시아 화산 또 폭발 징후

지난 2018년 쓰나미를 유발해 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최근 다시 대규모 폭발 징후를 보이면서 해안가 주민들과 선박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7일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PVMBG)에 따르면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순다해협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섬에서는 지난 4일과 5일, 6일 사흘 연속으로 1~1.5km의 화산재 기둥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재난 당국은 1월 16일부터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의 활동이 활발해져 화산재 분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구 주변 2k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다. 방재 당국은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언제든 대규모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자바섬 반투안에르 등 해안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의보를 내렸다. 아울러 순다해협을 지나는 선박과 어선들에 대해서도 화산 분출에 따른 높은 파도 등 돌발 상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 주말 화산 폭발을 우려해 해당 지역 어선들이 상당수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전했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2018년 12월 남서쪽 경사면 64헥타르(64만㎡)가 무너지면서 해저 산사태와 쓰나미를 연쇄적으로 촉발했다. 이로 인해 높이 5m의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면서 400여명이 숨졌다. 1928년 해수면 위로 솟아오른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높이가 338m까지 커졌다가 2018년에는 남서쪽 경사면 붕괴로 110m로 줄었다. /연합뉴스

캐나다 수도에 비상사태...코로나 백신반대 트럭에 점령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의사당 앞에 6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항의하는 트럭 운전기사와 이들을 성원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이 트럭 위에 올라가 국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변화는 수수께끼”

슈퍼컴퓨터로도 예측 못해
“최신 모델링 나와도 부정확”

“기후변화 모델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수수께끼에 빠졌어요.” 미 항공우주국(NASA) 고더드 우주연구소(GISS)에서 기후변화 모델링을 총괄하는 개빈 슈미트는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렇게 말했다. 전세계 과학자가 머리를 맞대 올해 말 내놓을 예정인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앞두고 슈퍼컴퓨터로도 기후변화 예측이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WSJ은 전했다. IPCC는 기후 변화 위험 평가,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 소속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전문가 등 전문가 3천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각각 정상이 기후변화 예측에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이들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주도로 만나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기후변화 모델은 4개에 불과했다. 그러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렸을 때는 전세계 49개 연구진이 개발한 굵직한 기후변화 모델만 해도 100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기후변화 예측은 이같이 술한 모델링을 총동원해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수수께끼라는 게 과학자들의 말 못할 속사정이다. 최근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에서 복합지구시스템모델2(CESM2)로 새로운 기후변화 예측을 내놓자 과학계는 처음엔 고개를 가우뚱했다. 무려 최소 20개에 달하는 기존 모델과는 판이한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CESM2가 내놓은 전망은 기존 모델보다 훨씬 암울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곧이어 CESM2와 비슷한 예측이 뒤따르기 시작했고, 현재 10여개 모델이 “지구 미래 기온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솟을 수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